

나비분류학에서 인문학까지

- 석주명식 확산형 학문의 전개와 의미 -

문만용*

<차례>

- I. 머리말
- II. 일제 강점기 생물학 연구와 한국인 생물학자
- III. '교사 겸 연구자'의 나비연구
- IV. 생물학자의 한국학 운동
- V. 과학과 인문학 가로지르기
- VI. 맺음말

국문요약

석주명은 나비분류학 연구에서 시작하여 고전 조사 및 박물학사 정리, 방언에서 인구학까지 걸친 제주학 연구, 그리고 에스페란토운동에 이르기까지 과학과 인문학을 넘나드는 폭넓은 학문활동을 전개했다. 그는 자신의 나비연구를 단순히 생물학 연구에 가두지 않고 국학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 나비와 관련된 역사와 언어에 대한 탐구를 추가했다. 한반도 전역을 누비며 방대한 표본을 채집하는 연구방법 덕분에 각 지역마다 독특한 방언과 역사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특히 제주도에 대한 관심은 6권에 달하는 제주도 총서의 집필로 이어졌다. 그는 인문학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나비연구의 궁극적 목적인 자연과 인생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결국 석주명이 보인 폭넓은 학문활동은 나비연구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기 위한 '인문학적 나비학'이었으며, 방대한 자료 수집을 기본으로 하는 나비연구의 연장이었다.

주제어 : 석주명, 나비분류학, 제주학, 국학, 인문학적 나비학, 자료 수집.

* KAIST 한국과학문명사연구소 연구교수

I. 머리말

일제 강점기에 과학기술 분야에서 전문 연구자로 활동할 수 있는 한국인은 매우 드물었다. 고급 과학기술 교육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학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본 유학이 필수적 과정이 되었다. 좁은 길을 거쳐 뛰어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일본 제국대학 교수까지 오른 이태규(李泰圭)나 이승기(李升基)같은 인물도 있었으나 그들이 전부였다. 그들에 앞서 미국에서 한국인으로 첫 번째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원철(李源喆)은 귀국하여 연구를 접고 연희전문에서 교육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대형망원경으로 맥동변광성을 연구했던 이원철이 교육용 망원경조차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식민지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연구는 별로 없었다. 안동혁(安東赫)처럼 총독부 중앙시험소에서 연구에 종사한 경우도 있었지만 관립 시험연구기관에서 근무한 한국인 연구자들은 기관마다 한두 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동식물 분류학을 중심으로 한 박물학은 높은 수준의 실험장비나 전문지식이 없어도 연구가 가능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한국인 연구자들도 많은 편이었다. 1923년 결성된 조선 박물학회(朝鮮博物學會) 회원 중 10% 정도가 한국인이었고, 학회지인 『朝鮮博物學會雜誌』에 논문을 게재한 한국인 연구자들은 10여명이 넘었다.¹⁾ 다른 과학기술 분야에 비해 생물학은 흥미로운 동식물 이야기를 통해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었고, 전문기관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1) 일제 강점기에는 생물학이라는 표현도 있었으나 실제로는 박물학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당시 박물학은 동식물학과 보건위생은 물론 광물학까지를 포괄했다. 조선박물학회의 이름에는 생물학이 들어있지 않았고, 실제로 지질학자들도 회원으로 참여했지만 처음부터 생물학이 중심이었고, 『조선박물학회잡지』에 실린 논문도 생물학이 중심이었다.

주변 동식물 채집에서부터 연구를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 연구자가 많았다. 우리나라 근대소설의 효시로 꼽히는 이광수의 『무정』에서 주인공 형식이 “조선 사람에게 무엇보다 과학을 주어야겠”다면서 공부하기로 결심한 과학이 바로 생물학이었다.²⁾ 또한 1930년대 과학운동 과정에서 선정된 ‘과학데이’(science day)는 다름 아닌 생물학자 다윈(Charles R. Darwin)의 기일인 4월 19일이었다(임종태, 1995). 이렇게 볼 때 박물학·생물학이 일제 강점기 한국, 나아가 한국인의 과학연구를 대표하는 분야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인 생물학자 중 연구활동 측면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인물로 식물학의 정태현(鄭台鉉), 곤충학의 조복성(趙福成)과 석주명(石宙明)을 들 수 있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쉽지 않지만 이들 세 명 연구자들은 발표한 논문이나 보고서, 저서 등에서 다른 생물학자에 비해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고, 한국 근대 생물학 형성과정에서 핵심 인물로 활동했다. 특히 석주명은 양적으로 가장 많은 100여 편 이상의 학술논문을 발표했으며, 1940년 그간 한국산 나비에 대한 모든 연구를 집대성한 영문 연구서 *A Synonymic List of Butterflies of Korea*(한국산 나비의 동종이명 목록)를 펴냈다. 비록 이 책은 모노그래프가 아니라 한국산 나비 각 종별로 기존 연구를 정리한 목록 형식이었지만 일제강점기에 한국인 과학자가 영문으로 집필한 유일한 연구서였다. 이혼 재판이 중앙 일간지에 보도될 정도의 유명세를 탔던 그는 한국전쟁 와중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사람들의 기억에서 빠르게 사라져갔다.

1985년 평전이 간행된 이후 석주명은 다시금 대중들에게 회자되기 시작했다(이병철, 1985). 1996년 초등학교 교과서에 소개되었으며, 1998년

2) 이광수가 생물학을 선택한 것은 사회진화론에 대한 그의 관심과 관련이 있었다. 김종욱, 2002.

과학의 날이 들어있는 4월의 문화인물로 선정되고, 2008년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에 헌정됨으로써 그의 학문과 삶이 새롭게 주목을 받게 되었다. 2011년 10월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가 개최한 '석주명 선생 탄생 103주년 기념 학술대회' 역시 그 같은 움직임의 하나로서, 특히 나비연구에서 제주학, 에스페란토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활약했던 석주명의 폭넓은 학문적 여정을 '융복합의 선구자'로서 재조명했다.

필자는 '조선적 생물학자'라는 개념으로 석주명의 연구활동을 분석한 바 있다(문만용, 1999). 이 글에서는 앞선 연구를 재구성하고 확장하여 석주명이 보여준 광범위한 학문적 관심사에도 불구하고 나비연구가 그의 학문활동의 출발점이자 핵심이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앞 논문에서는 석주명의 연구를 민족주의 관점에서 평가하지 않았으나, 이 글에서는 '교사 겸 연구자'라는 그의 경력이 생물학 연구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는 문화적 민족주의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석주명이 남긴 글을 근거로 나비분류학에서 나비와 관련된 국학을 거쳐 '자연과 인간의 조화'라는 목표를 위해 인문학까지 가지를 뻗친 석주명식 확산형 학문활동의 전개 과정과 그 의미에 대해 분석해보겠다. 나비연구에서 국학의 영역으로 확대된 기획이 '조선적 생물학'이었고, 방언·역사 등 인문학 연구도 나비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었음을 설명할 것이다. 아울러 교사 겸 연구자였던 그의 처지와 나비연구 및 그의 독특한 과학관(科學觀)과의 상호관계도 설명해 보고자 한다. 또한 융복합의 선구자로 평가받게 한 그의 다양한 학문 영역의 추구는 나비연구 방법론의 연장인 광범위한 자료 수집에서 기인한 것이었음을 주장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비슷한 시기 생물학자 중 석주명과 유사한 학문적 관심을 보인 인물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2절에서는 일제 강점기 한국에서 생물학 연구의 개략적 상황과 한국

인 생물학자의 등장에 대해 논할 것이며, 이는 다음절에서 다룰 교사 겸 생물학자로서 석주명이 수행한 나비연구와 그가 보인 한국학에 대한 관심을 이해하게 하는 바탕이 된다. 3절에서는 교편을 잡으면서 시작한 나비연구가 점차 통계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개체변이의 범위를 밝혀 동종이명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확립되어 나가는 과정을 다루고자 하며, 외국인 학자와 자신의 연구결과와의 차이점을 인식하게 된 것이 그의 연구활동과 독특한 과학관 형성의 핵심적 계기가 되었음을 지적할 것이다. 아울러 이는 최근 과학사학계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식민지 과학’(colonial science)의 관점에 부합하는 흥미로운 사례임을 설명하고자 한다. 4절에서는 자연에서 나비를 찾는 연구에서 더 나아가 역사 속의 나비까지 추적하는 국학적 나비학으로 확대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생물학에 국적을 부여하려 했던 그의 태도는 식민지라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문화적 민족주의로 이해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5절에서는 일견 무관해 보이는 역사·방언조사, 제주도 연구, 에스페란토운동과 나비연구와의 관련을 석주명의 언급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과학과 인문학을 넘나들었던 그의 학문활동의 의미를 정리할 것이다. 아울러 그와 유사하게 생물학에서 인문학으로 학문의 영역을 확장해 나간 동시대 일본의 생물학자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석주명의 확산적 학문활동이 채집과 자료수집에 기반을 둔 나비연구의 연장선에 놓여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II. 일제 강점기 생물학 연구와 한국인 생물학자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는 기본적으로 한국에서의 고등교육이나 고급과학기술 활동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한국에 설립된 고등

교육기관, 시험연구기관, 과학기술 학술단체는 그 숫자도 적었고, 상당수는 일제의 대륙침략이 본격화되는 중일전쟁 이후에 설치되었다(김근배, 2005). 대학은 1926년 설립된 경성제국대학이 유일했으나 이는 법문학부와 의학부로만 구성되었고, 이공학부는 전쟁이 본격화되던 1941년에야 발족하여 수업 기간 단축 등 파행이 불가피했다. 또한 시험연구기관은 모두 소규모로 대개 시험 및 조사만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었기에, 당시 한국에는 활발한 학술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매우 드물었으며, 연구활동을 주도한 사람들은 대부분 일본인들이었다. 그렇지만 박물학·생물학은 분야의 특성상 한국인 연구자의 참여가 활발한 편이었다.

우리나라 생물에 대한 근대적 연구는 19세기 중반 서양인의 채집 활동에서 비롯되었다(김훈수, 1989). 개항 이전부터 각종 목적의 탐사선에 의해 동물과 식물이 채집되었고 이 표본은 외국으로 보내져 분류학적 연구 대상이 되었다(이창언 외, 1991). 초기의 채집은 한국이 아직 개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연안이나 도서지역에서 이루어졌으나, 개항 이후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분류학적 연구 대상으로서 한국산 생물을 처음으로 채집한 사람은 영국인 아담스(A. Adams)로 알려져 있다. 그는 1843년부터 1846년까지 동아시아 일대의 측량을 담당한 영국 군함 Samarang호에 군의관으로 승선하여 한반도 동해안과 남해안, 특히 제주도를 수차례 탐사하면서 딱정벌레목, 나비목, 벌목, 메뚜기목 등의 곤충류와 패류를 채집하였다. 이 표본들을 바탕으로 영국인 테이텀(T. Tatum)은 1847년에 논문을 발표하여 제주도에서 채집된 *Carabus monilifer*(제주홍단딱정벌레)를 신종으로 기재하였다. 이후 한반도의 동물에 대해서는 영국, 독일, 러시아의 학자들이 주류를 이루어 나비류와 딱정벌레류 곤충을 중심으로 한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식물의 경우 러시아 및 영국 채집가들이 식물표본을 영국을 비롯한 서구 학계의 분류

학 연구재료로 공급하였다. 한국의 식물이 최초로 외국에 소개된 것은 1854년 러시아 해군제독 슈리펜바흐(B. A. Schripenbach)가 버들과, 장미과, 인동과, 철쭉과 등을 포함하여 해안지방에 생육하는 약 50여 종의 채집품을 러시아에 보낸 것이었다(정영호, 1984).

19세기말부터는 일본인 학자의 참여가 나타났으며, 일제의 한국 강점 이후 한국산 생물에 대한 연구의 주도권은 이들에게 넘어갔다. 특히 한국산 식물의 연구는 ‘조선식물조사사업’이라는 이름하에 조선총독부에 의해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1912년 조선 총독 데라우치(寺內正毅)가 도쿄제대 부설식물원(小石川植物園)을 방문하여 한국 식물에 대한 체계적 조사를 제의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듬해부터 약 20여 년의 장기 계획으로 수립된 이 조사사업은 초기에는 총독 직할로 추진되다가 1922년 8월 조선총독부 임업시험장이 설립되자 이 기관으로 이관되었다. 이 사업은 도쿄제대의 나카이 다케노신(中井猛之進)이 조선총독부 축탁연구원의 자격으로 주도했으며, 일본 식민지 지배의 문화적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높이기 위한 정치적 판단의 산물이자 식민지 자원조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中井猛之進, 1927).

상대적으로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낮았던 동물에 대한 연구는 식물조사사업같은 체계적인 지원 없이 개별 연구자들에 의해서만 진행되었으나 곤충을 중심으로 포유류, 조류, 어류, 양서류, 파충류, 거미류, 십각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곤충은 지구상의 동물 종수의 3/4 이상을 차지하며 다른 동물에 비해 채집이 용이한 특성상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나비류의 채집 및 분류학적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한국산 나비에 대해서는 1882년 영국인 버틀러(A. G. Butler)가 첫 논문을 발표한 후 독일인 픽센(C. Fixen), 영국인 리치(J. H. Leech) 등이 중요한 업적을 남겼으며

1905년 이후로는 일본인 학자들이 그 뒤를 이었다. 마쓰무라(松村松年), 니레(仁禮景雄), 오카모토(岡本半次郎), 모리(森爲三), 도이(土居寛暢), 스기타니(杉谷岩彦) 등이 대표적인 학자들이었으며, 1930년대 중반부터는 석주명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나비 외의 곤충에 대해서는 나카야마(中山昌之介), 사이토(齊藤孝藏), 다카기(高木五六), 모리 등의 일본인 학자와 조복성이 많은 연구성과를 남겼는데, 특히 모리는 곤충 뿐 아니라 어류, 포유류, 조류 등의 동물은 물론 식물에 대해서도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어류 분야에서는 부산 수산시험장에서 근무하다가 큐슈제대 교수가 되어 일본으로 돌아간 우치다(内田惠太郎)가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였다.

이들 한국의 생물학 연구자들은 1923년 우리나라 최초의 정식학술단체였던 조선박물학회를 결성하였다. 이 단체는 “박물학을 연구하며, 이 학문의 보급을 도모하고, 특히 조선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표방하였으며,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박물강연회, 박물전람회 등의 행사를 수시로 개최하였다. 학회지로는 1924년 『朝鮮博物學會講演輯』이 두 번 발간되었으며, 이는 이듬해 『朝鮮博物學會雜誌』로 이름이 바뀌어 1944년까지 40호가 나왔다. 이 단체는 일본인 학자들이 주도하여 창립되고 유지되었는데, 창립 초기인 1926년의 조선박물학회 전체 회원 174명 중 한국인은 21명이었으며, 1938년에는 308명 중 43명으로서 10%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었다. 조선박물학회 외에도 조선산림회, 조선박물교원회, 조선식물연구회 등 몇 개의 생물학 관련 단체가 있었으나 조선박물학회가 가장 많은 연구자들을 포괄했으며 학회지 발간 등의 학술활동도 가장 활발했다. 때문에 『조선박물학회잡지』는 일제시기 한국의 생물학 연구경향을 살필 수 있는 좋은 자료라 할 수 있다.

『조선박물학회잡지』에 실린 318편의 논문을 보면 분류학 분야에 속한

것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 수준은 기재(description), 목록(list), 생물상(biota) 등 기초 분류에 머물렀다(이병훈, 김진태, 1994). 이러한 현상은 일본의 식민지이자 과학 후진국이었던 한국의 상황에서는 불가피했다. 당시 일본에서는 분류학 분야를 넘어 생리학, 유전학, 발생학, 생화학 등의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었으며 일부 분야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기도 하였다.³⁾ 물론 이러한 연구는 분류학적 성과의 축적을 전제로 하며, 전문적 실험 기자재 등을 갖춘 연구환경과 고등교육을 받은 연구인력을 필요로 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에 굳이 그와 같은 교육 및 연구기관을 만들려 하지 않았고, 연구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급인력들이 연구를 위해 한국에 들어올 이유가 없었기에 당시의 한국에서는 분류학 분야 연구가 주를 이룰 수밖에 없었다.

일본인 학자들이 연구를 주도하고 있던 상황에서 1920년대부터 정태현을 시작으로 한국인들의 연구가 등장했으며, 1930년대에 들어서면 상당한 연구성과가 조복성, 석주명 등 한국인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국인들이 본격적인 생물학 연구를 수행하게 되는 1930년대 이전에 이미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한 한국인도 몇 명 있었다.⁴⁾ 이들은 귀국 후 모두 각급 학교에서 생물학을 가르쳤으나 대부분 연구활동을 펼치지는 못했다. 이러한 현상은 그들이 연구보다는 교육에 더 중요성을 부여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대학에서 배운 수준의 생물학을 연

3) 누에의 잠중 연구를 통하여 동물에서도 멘델 유전이 성립한다는 것을 최초로 밝힌 도야마(外山龜太郎), 사이클로트론을 생물학연구에 이용했던 니시나(仁科芳雄)의 연구 등이 대표적이다. 1920년대에 이르면 생화학 연구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등 일본 생물학계의 주류는 이미 분류학 단계를 뛰어 넘은 상태였다. 杉山滋郎, 1994.

4) 이의경(李儀景)은 1928년 독일 뮌헨대학에서 동물학 박사학위를 받아 한국인으로서는 첫 번째이자 해방 이전까지 유일한 생물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가 되었으나, 이후 독일에 거주하면서 생물학자가 아닌 작가로 활동하여 국내 생물학계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점이 더 근본적인 이유였다. 특히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한국인들은 농사시험장 등 총독부 관련 기관에서 자리를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교육계가 유일한 진로가 되었다.

일제 강점기에 한국인이 생물학자로 활동하는 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다. 우선 일본인 연구자의 연구를 도와주면서 자신도 연구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경우로 정태현, 조복성이 대표적이다. 정태현은 조선식물조사를 위해 찾아온 도쿄제대의 나카이의 통역 겸 안내역을 맡아 그로부터 식물분류학의 이론과 실재를 배우면서 본격적인 식물 연구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이우철, 1994). 그는 1923년 일본인 연구자 이시도야(石戶谷勉)와 공저로 펴낸 『朝鮮森林樹木鑑要』(조선삼림수목감요)를 비롯하여 일제 강점기 동안 모두 6권의 연구서 및 보고서와 7편의 식물분류학 관련 논문을 펴내 한국 식물학의 태두로 꼽힌다. 조복성 역시 일본인 연구자의 조수로 일하면서 자신도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는 과정을 밟았다(김성원, 2008). 그는 보통학교 교사에서 경성제대 예과 교수 모리의 조수로 옮기면서 전업 연구자가 되어 딱정벌레목 곤충을 중심으로 분류학 연구를 수행했다. 1929년 『조선박물학회잡지』에 한국인으로서의 처음으로 『울릉도산 인시목(鱗翅目)』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강점기 동안 주로 곤충을 다룬 57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스승이었던 2명의 일본인 연구자와 3인 공저로 『原色 朝鮮の蝶類』(원색 조선의 나비)를 펴내기도 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이었지만 학문에 대한 열의와 꾸준한 노력, 그리고 표본을 다루는 남다른 기술을 바탕으로 당당한 생물학자로 활약했다.

두 번째로 고등농림학교 등을 졸업하고 중등학교에서 박물교사로 근무하면서 생물학 연구를 수행했던 경우로, 석주명과 그의 스승이었던

조류학자 원홍구(元洪九) 등 많은 한국인 생물학자들이 이 범주에 해당된다. 이들은 교사라는 본업과 연구자를 겸했기 때문에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나 연구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한편으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동식물의 우리말 이름이나 용어 등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등 ‘교사 겸 연구자’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일본제국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고 전문적인 연구자로 활동했던 경우로, 동물학의 강영선(姜永善), 식물학의 이민재(李敏載)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과의 조수가 되거나 만주의 연구기관에 들어가는 등 한국 밖의 기관에서 연구를 수행했는데, 그들의 연구주제는 세포학, 생리학 등으로 대부분 한국인 생물학자들이 동식물 분류를 중심으로 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박상대, 2004 ; 이영록, 2004). 일제 강점기 일본 제국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한 한국인은 9명에 불과했으며, 이들 중 졸업 후 연구활동을 계속했던 경우가 절반도 되지 않을 정도로 좁은 길이었다.

이처럼 일제 강점기에 한국인이 생물학 연구자의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특히 두 번째 루트의 교사 겸 연구자들은 연구에 전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연구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으며, 그중 대표 격인 석주명은 나비에 집중하여 교사라는 자신의 처지를 연구 방법의 한 부분으로 활용함으로써 남다른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연구자 이전에 교사로서 교육에 대한 관심이 그의 연구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연구 여건에서 학문의 문턱을 쉽게 넘나들 수 있었기 여러 분야로 학문적 관심을 넓혀갈 수 있었다.

Ⅲ. ‘교사 겸 연구자’의 나비연구⁵⁾

석주명이 한국산 나비의 권위자로 인정받기까지는 연구의 후발주자이자 고보의 교사라는 자신의 여건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연구방법의 확립과 이를 뒷받침하는 남다른 노력이 필요했다. 일본의 가고시마(鹿兒島)고농을 졸업하고 모교인 송도고보의 박물관교사가 된 석주명은 주변에서 나비를 채집하는 일에서부터 나비연구를 시작했다. 초기에는 단순히 채집한 표본을 무리지어 정리하는 ‘원시적 방법’의 분류를 수행하다 1930년대초 일본에서 간행된 곤충도감을 바탕으로 채집한 표본들을 동정하고 목록을 작성하여 1932년부터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이 논문들은 일본의 *Zephyrus*에 다카쓰카(高塚豊次)와 공저로 발표된 『조선 구장(球場)지방산 접류목록』처럼 특정 지역에서 채집된 나비의 목록을 정리한 결과였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면서 석주명은 자신의 조사결과와 참고문헌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자신이 같은 종으로 분류한 표본들이 도감에는 다른 종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이는 같은 종의 개체변이를 학자들이 새로운 학명으로 보고했기 때문이었다. 개체변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표본을 조사해야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특히 한국산 나비를 다룬 외국 학자들은 소수의 표본만을 대상으로 하여 변이가 심한 표본이 나타나면 신종이나 신아종으로 발표했다. 여기에는 학명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려는 학자들의 공명심과 “새로운 종을 발표할 때는 전형적인 하나의 수컷으로 기재한다”고 규정한 만국명명규약 자체의 문제점도 작용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다.

5) 이 부분은 문만용, 1999: 3절 ‘통합론자(Lumper)로서의 나비분류학’을 줄이고 인용문과 식민지 과학에 대한 논의를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석주명은 많은 표본을 채집하여 개체변이의 범위를 밝히는 데 집중적인 관심을 쏟게 되었고, 1933년 『조선박물학회잡지』에 은점표범나비의 변이에 대한 첫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개성지방에서 많이 발견되는 은점표범나비 460여 개체를 채집·조사하여 학계에 보고된 3개 아종명이 본종의 개체변이에 불과한 동종이명(同種異名)임을 주장했다. 이후 개체변이의 범위를 밝혀 동종이명을 제거하는 것은 석주명의 주된 연구 방향이 되었다. 하지만 그 같은 연구방법을 석주명이 처음으로 창안한 것은 아니었다. 후에 석주명이 정리한 한국산 나비의 연구사에 따르면, 리치는 1893년에 출간된 *Butterflies from China, Japan, Corea* (중국, 일본, 한국의 나비)에서 이미 개체변이에 관해 논했으며, 개체변이를 중시하는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한국산 나비에 대해 22개의 동종이명을 정리했다(석주명, 1972). 또한 일본의 어류연구 권위자였던 도쿄제대 다나카(田中茂穂)는 1926년 말에 자신이 개체변이의 중요성에 대해 주장했고, 이에 즉각 반응을 나타낸 사람이 석주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석주명은 1950년에 완성한 유고 『한국산 접류의 연구(제3보)』에서 자신이 처음은 아닐지라도 자신의 연구과정에서 독자적으로 그러한 연구방법론을 인식했으며, 다나카는 자신보다 나중에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석주명이 자신의 주장대로 순전히 독자적인 연구과정에서 개체변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학자들의 문헌으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그가 처음부터 개체변이의 범위를 밝히는 작업에 나선 것은 아니었으며, 개체변이의 의미를 자신의 채집·조사 과정에서 더욱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리고 1934년 이후 논문에서 나타나듯이 개체변이 범위를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정량적 형질을 추출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석주명이 고안한 것이었다.

1934년 『조선산 접류의 연구(제1보)』에서부터 개체변이의 범위를 보일 수 있는 정량적인 형질로 앞날개 길이, 뱀눈무늬의 수와 위치가 등장하여 연속적인 변이를 더욱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었다. 이 형질들은 객관적인 통계처리가 가능한 것들로서 도표화를 통해 변이의 정규분포곡선을 그려낼 수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석주명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이 같은 방법을 사용한 개체변이 연구의 대표적인 예는 ‘배추흰나비의 변이연구’이다. 석주명은 세 편의 논문에서 모두 167,847개체를 조사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배추흰나비의 변이를 밝혔다. 그는 채집된 모든 표본의 암·수를 구별하고 각각의 형질 변이를 살폈는데, 조사한 변이 내용은 날개 형태, 무늬나 띠의 색채·모양·위치 그리고 앞날개 길이 등이었다. 특히 앞날개 길이는 mm 단위로 측정하여 평균치와 표준편차 및 변이계수를 구하고 성에 따른 비율도 구한 다음 이를 그래프로 나타냈다. 앞날개 길이는 최소 17mm에서 최대 34mm로 두 배의 차이가 있었으나 암·수 모두 27mm에서 하나의 정점이 형성되는 정규분포곡선이 형성되었다. 이를 통해 그 동안 크기, 날개 형태, 무늬 양상에 따라 다른 종·아종·이형이라고 보고된 20여 개의 학명을 제거했다.

정량화 가능한 형질로 선택된 또 다른 형질인 뱀눈모양 무늬의 수와 위치에 관한 연구 중에서 가장 많은 개체를 조사한 것은 ‘굴뚝나비의 변이연구’였다. 그는 두 편의 논문에서 모두 34,235개체의 표본을 대상으로 앞날개 길이를 측정함과 동시에 앞뒷날개 바깥쪽과 안쪽에 나타나는 뱀눈무늬를 위치별로 하나하나 조사하여 무늬의 양상을 도표화하였다. 그 결과 굴뚝나비의 뱀눈무늬는 하나도 없는 것에서부터 많게는 12개까지 있으며, 무늬가 있는 위치에 따라 모두 68가지 타입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앞날개 길이는 수컷과 암컷이 각각 30mm, 35mm에서 정점이 나타나는 정규분포곡선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크기나 무늬의 양상에 따라 그 동안 이종으로 보고되었던 10여 개 학명은 모두 무의미한 동종이명임이 밝혀졌다.

물론 현재 관점에서 볼 때 석주명의 연구방법은 지극히 소모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현재의 수량통계분류학에 따르면 개체변이의 정규분포곡선을 작성하는 데는 1,000개체 정도의 표본이면 충분하며, 정밀한 표본 추출이 될 경우 훨씬 소수 표본으로도 개체변이의 범위를 밝힐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학적 지식을 생물분류학에 본격적으로 적용시킨 논의는 서구 학계에서도 1930년대 후반부터 나오기 시작하였다(Mayr *et al.*, 1953) 때문에 석주명이 활동했던 당시의 분류학 수준에서는, 그리고 통계학을 깊이 공부할 기회가 없었던 그의 처지에서는 가능한 한 다수의 개체를 모집하는 것이 중시될 수밖에 없었다.

석주명의 분류학 연구는 가능한 한 이미 인정된 체계에 포함시켜 분류군을 크게 나누려는 통합론자(lumper)의 것으로, 당시 많은 학자들이 택하고 있는 세분론자(splitter)의 대척점에 있었다. 그는 수년에 걸친 채집·조사 결과 자신도 모르게 극단적인 통합론자가 되었다면서 장차 학자들이 변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통합론자의 방식이 올바른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전형적인 통합론자였던 석주명의 나비분류학은 *A Synonymic List of Butterflies of Korea*의 출간으로 그 정점을 이루게 되었다(Seok, 1939).⁶⁾ 이 책은 영국 왕립 아시아학회 한국지회(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의 요청을 받아 집필된 것이었다. 그는

6) 이 책의 출판년은 1939년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940년에 발행되었다.

한국산 나비를 255종으로 정리하고 각각의 종에 대하여 그 동안 발표되었던 모든 연구 문헌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일부 미기록종과 함께 212개에 달하는 동종이명의 목록을 덧붙였다. 4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이 책은 한국산 나비 연구에 매우 중요한 참고도서가 되었고, 석주명은 일본을 넘어 구미학계에까지 자신의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석주명식 나비분류학은 *Synonymic List*의 완성으로 일단락을 지었다. 물론 이후에도 다수 표본의 통계처리를 통해 개체변이 범위를 밝힘으로써 동종이명을 제거하는 연구방식이 계속되었지만 연구결과는 한두 종 나비를 다루는 소논문보다 한국산 나비 전체를 포괄하는 종합적 논문 형태로 발표되었다. 1942년 발표된 「조선산 접류의 연구(제2보)」와 1950년에 완성된 유고 「한국산 접류의 연구(제3보)」가 대표적이다. 1934년 「조선산 접류의 연구(제1보)」와 위의 2편을 포함한 3편의 논문에서 다루어진 나비 표본은 모두 총 8과 211종 201,367개체에 이른다. 그는 이러한 조사·연구를 통해 한국산 나비의 동종이명 921개 중 90%가 넘는 844개 학명을 정리하였다.⁷⁾ 이는 그의 변이연구가 종합·정리의 단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며, 실제로 그는 1940~50년까지 나비연구사를 ‘정리의 시대’로 명명했다.⁸⁾ 비록 정리의 시대라 할지라도 표본의 누적에 따라 최종적

7) 물론 석주명의 연구도 완벽한 것은 아니어서 844개의 학명 중에 큰줄흰나비(*Artogeia(Pieris) melete* Ménétriès), 석물결나비(*Ypthima amphithea* Ménétriès), 황오색나비(*Apatura metis* Fryer) 등은 이후 정상 학명으로 복권되었다.

8) 석주명은 우리나라 나비의 연구 역사를 5시기로 구분하여 설명한 바 있다. 1기는 ‘학명으로 기록되기 이전의 시대’이고, 2기는 ‘서양인이 기록한 시대’(1882~1901), 3기는 ‘주로 일본인이 기록한 시대’(1905-29)였다. 4기는 우리나라 학자로는 처음으로 조복성이 논문을 발표한 시기를 기점으로 하는 ‘內外인이 기록한 시대’(1929~39)이고, 5기는 석주명의 *Synonymic List* 출판을 기점으로 하는 ‘정리의 시대’(1940~50)로 구분되었다. 석주명, 1972: 58-61쪽. 이 글은 1950년에 작성되었으나 발표되지 못하고 1972년 유고로 간행되었다.

인 연구결과는 계속해서 조금씩 변화를 보였다. 석주명은 *Synonymic List*에서는 한국산 나비를 모두 255종으로 정리했는데, 10년 뒤에 완성한 연구에서는 234종으로 수정했으며, 그 사이에 추가로 보고된 4종을 포함해 총 238종이라고 밝혔다.

석주명의 나비연구는 *Synonymic List* 이후 정리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분포연구라는 새로운 면모를 추가했다. 사실 분포연구는 방대한 표본의 채집을 기본으로 하는 석주명식 분류학의 자연스러운 연장이었다. 변이연구와 분포연구는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었다. 변이연구를 위해서는 다수의 개체를 채집해야 하고 그 과정을 통해 분포 양상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변이연구보다 분포연구는 훨씬 넓은 범위의 자료 축적을 필요로 한다. 때문에 1939년부터 분포연구를 담은 논문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1929년부터 시작하여 10여 년에 걸친 채집·연구의 결과로 한국산 나비의 분포를 밝힐 수 있을 만큼 석주명의 조사 자료가 축적되었음을 뜻했다. 10여년 이상의 연구로 많은 표본과 함께 그 표본의 채집지에 대한 정보도 쌓이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산 나비의 분포 범위를 밝히는 작업을 본격화했던 것이다. 석주명은 자신이 직접 채집을 다닌 곳과 나비를 채집한 장소를 지도에 꼼꼼하게 기록했으며, 여기에 해당 지역의 기온, 강수량 등 환경정보가 추가된다면 특정 종과 서식환경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분포연구는 생물지리학·생태학 연구의 출발점이 된다. 1939년부터 등장한 분포연구는 변이연구를 다룬 논문 뒤에 분포지도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석주명은 분포연구와 변이연구를 바탕으로, 형태에만 치중하는 분류학에서 벗어나 유연관계를 고려하여 계통을 세우고 환경과 분포와의 관계까지 밝혀내는 곤충학을 추구하려 했다.

[앞으로의 연구과제는] 그야 물론 한국 나비의 계통을 세우는 일이지요. 유연관계를 계통 세우는 것과 분포 상태를 계통 세우는 일, 즉 지역을 통해서 땅과 나비의 관계를 아는 것과 배추흰나비의 분포와 활약을 알아내는 것인데...⁹⁾

나의 연구가 아직 그까지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나비의 연구가 완성만 된다면 어떤 지방에 가서 한 때의 나비만 몇 마리 잡아 보아도 그 지방의 형편을 측정 할 수가 있겠고 사계를 조사 않고도 그 지방의 계절의 변화도 짐작 할 수가 있겠으며, 농작물의 적부와 질병, 더욱이 유행병의 침입 여하도 예측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왜 그러냐하면 나비라고해도 한두 종뿐이 아니고 지구위에 있다고 기록된 2만의 나비종류는 피차에 연관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식료인 식물과의 관계 또 기후와의 관계 등 나비는 절대로 고립하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석주명, 1948).¹⁰⁾

예를 들어 공작나비가 날고 있으면 그 지방은 호프란 식물의 재배가 가능한 저온 농업지대임을 알 수 있고, 자세히 계산만 한다면 그 지대의 사계 상태도 산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비록 그러한 연구를 완성하기 전에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지만 석주명의 분포연구 가치는 1973년 유고로 간행된 『한국산 접류 분포도』(보진재)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250여 종 한국산 나비 각 종마다 그와 그의 제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해당 종을 채집한 위치가 하나하나 표시된 한국지도와 그가 세계 각지의 학자와 표본, 학술 자료를 교환하여 얻게 된 지식을 바탕으로 해당 나비가 발견된 지역을 표시한 세계지도가 한 장씩 담겨있다.

9) 「서재방문기-세계적 나비학자 석주명씨편」, 『주간서울』 60호, 1949, 9쪽.

10) 이 글은 원래 1947년 「국학과 생물학」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신문에 5차례로 나누어 발표되었고, 이듬해 김정환 편(1948), 『현대문화독본』(문영당)에 정리되어 수록되었다.

한국산 나비라는 한 분야에만 집중하고, 많은 수의 개체를 채집하여 개체변이 범위를 규명함으로써 잘못된 기존연구들을 수정해 나갔던 석주명의 접근법은, 이미 50여 년 나비연구 성과가 축적된 상황에서 후발연구자가 택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방향이었다. 물론 변이연구의 가치를 인식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수행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방대한 표본의 확보와 조사라는 쉽지 않은 전제를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었다. 석주명은 20여 년의 연구생활 동안 한반도 전역을 누비며 나비를 잡았으며, 송도교보 교사로서 학생들의 과제물을 연구에 활용하여 무려 75만 개체에 이르는 표본을 조사함으로써 그 전제를 충족시켰다. 석주명식 연구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 비용, 노력이 요구되었으나, 그는 남달랐던 생활방식을 통해 그러한 연구를 실천에 옮겼던 것이다.

전통시대에도 ‘박물(博物)’이라는 용어가 존재했고 『자산어보』를 비롯하여 동식물의 분류를 다루는 실학자들의 저작 등 근대적 생물학과 유사한 성격의 작업이 존재했지만, 서구에서 형성된 분류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생물학은 본초나 박물의 전통과 직접 연결되지 못했다. 따라서 일제 강점기 한국인 생물학자들은 서구나 일본으로부터 도입된 근대 생물학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단순한 일방향적 이식이 아니었다. 그동안 식민지의 과학을 바라보는 주된 시각은 ‘서구의 과학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도입되었는가’였다. 그러나 최근 중심-주변부의 구분을 비판하고 식민지의 토착적 지식이나 방법이 ‘식민지 과학’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식민지 과학이 단순한 서구 과학 이식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사실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다 (Chambers and Gillespie, 2000). 기본적으로 생물이 지니는 토착적 성격이 있고, 필드워크가 필수적인 생물 연구에는 토착 연구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특히 생물학 분야 형성은 단순한 도입·수용 과정으로는 설

명할 수 없다.

석주명의 나비분류학은 식민지 과학에 대한 최근 연구흐름과 잘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방대한 표본을 통계처리하여 개체변이 범위를 밝혀 동종이명을 제거하는 석주명식 분류학은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연구자가 따라 하기 어려운 방식이었다. 후발주자로 뛰어든 그였지만 효과적인 방법론과 이를 뒷받침한 부지런함으로 왜곡되지 않은 한국 나비상을 규명하겠다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냈다. 그는 연구에 불리한 ‘교사 겸 연구자’라는 처지를, 제자들을 활용해 조직적인 채집활동을 벌이고 학생들의 과제물까지 연구재료로 흡수하면서 자신의 연구가 지니는 강점으로 전환시켰다. 연구방법이 아주 고차원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한국에 거주하며 학생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야만 가능한 방식을 통해 한국산 나비의 최고 권위자가 되었던 것이다. 비록 석주명과 같은 연구가 당시 한국인 연구자의 일반적인 경향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장 다수를 차지했던 교사 겸 연구자를 대표하는 그의 연구는 일제 강점기 한국인 생물학 연구의 중요한 특성을 보여주었다.

IV. 생물학자의 한국학 운동

변이연구가 분포연구로 연장될 즈음 석주명의 나비연구에서는 또 하나의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산과 들이 아닌 역사에서 나비를 찾는 것이었다. 한반도 전역을 누비며 나비를 찾던 석주명은 1930년대 말부터 조선왕조실록이나 개인 문집 속에서 나비에 관한 기사를 찾는 데 많은 관심을 두었다. 이를 통해 나비에 대한 조상들의 인식이

나 이름, 그리고 생태적 정보를 얻으려 했다. 그가 찾아낸 기사들 중에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은 드물었지만 나비 이름 변화나 나비에 대한 전통적 관념 등을 제한적이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남계우(一濠 南啓宇, 1811~1890)의 나비그림은 그림 자체의 미적 가치뿐 아니라 학술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 석주명의 분석에 따르면 남계우의 그림에서 동정이 가능한 나비 수는 5과 37종에 이르며 배추흰나비, 호랑나비, 제비나비 등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석주명, 1943). 이를 바탕으로 석주명은 남계우가 거주했던 경성 부근의 나비상과 자연의 변천을 고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역사적 자료를 통해 나비연구 폭을 넓히려 했던 석주명의 태도는 변이연구의 흥미로운 확장이었다. 그는 남계우와 그의 그림이 빼어난 가치에도 불구하고 널리 알려지지 못한 이유가 “지금까지 조선에서는 조선 사람의 곤충학이 성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석주명, 1941). 이는 ‘조선 사람의 곤충학’은 자연에 존재하는 나비뿐 아니라 역사에 존재하는 나비와 그와 관련된 자료나 인물까지를 포괄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이미 한국산 나비에 대해서는 반세기가 넘는 연구성과가 쌓였지만 대부분 외국인 학자에 의한 연구였고, 그들이 한국의 고전이나 인물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은 낮았다. 따라서 자신과 같은 한국인 연구자의 곤충학은 전통에 대한 탐구도 포함함으로써 외국인의 연구와는 다른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함의였다.

석주명이 고전에 존재하는 나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일차적으로 그가 계속해서 수행해 왔던 나비에 대한 연구사 정리의 연장이었다. 그는 “*Synonymic List*를 편찬하는 관계로 조선고전까지 섭렵”하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석주명, 1941). 석주명 이전에 경성세대 예과의 모리가 *Zephyrus*에 『조선에서 나비群 이동의的古기록』이라는 제목으로 『광

해군 일기』에 실린 나비 기록을 소개한 바 있었다. 모리는 이 나비를 배추흰나비로 추정했으나 석주명은 자신의 채집경험에 바탕해 줄흰나비 고산형으로 간주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함경도 갑산, 북청 지역 인사들에게 나비군을 발견하면 하나라도 채집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처럼 전통문헌 속 나비 기록은 현재의 나비연구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확장된 연구사 정리이자 나비 분포의 역사적 변이를 추적할 수 있는 연구자료라는 의미도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드물지만 모리 같은 외국인 학자도 옛기록에 관심을 보였다.

자연이 아닌 역사 속에서 나비를 찾아 이를 자신의 나비연구와 연결 지으려는 석주명의 태도는 19세기 중국에 거주했던 영국의 박물학자들이 문헌학적 탐구와 자연사 연구를 결합시켰던 흐름을 상기시켜준다. 그들은 『本草綱目』을 비롯한 전통 문헌 분석을 통해 중국인들의 생물관, 더 나아가 중국 문명을 이해하는 한편 자신들의 박물학 연구 자체에도 활용하고자 했다. 이러한 연구는 자연학이자 동시에 중국학(Sinology) 연구였으며, 서구와 중국의 상이한 문화 사이에 번역 과정이었다고 설명된다(Fan, 2004). 석주명이 나비에 대한 고전을 추적했던 것과 영국 박물학자들이 박물학과 중국학을 결합시키려했던 움직임 속에서 상당한 유사점을 찾아 볼 수 있다. 물론 한국의 경우, 일제의 강점 이후 박물학 연구 역시 일본인 학자들이 주도하게 되면서 한국 박물학 전통에 대한 관심은 그리 크지 않았다. 영국 박물학자들에게는 중국 전통 문헌이 이국적인 문화와 생물상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었지만, 일본인 박물학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전통을 공유하고 있다고 여겨진 한국의 옛 박물학 문헌에 관심을 둘 이유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석주명은 ‘조선 사람의 곤충학’이라는 학문적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 역사에 관심을 보였던 것이다.

한편으로 역사적 자료를 찾는 일은 나비 이름을 추적하는 작업이기도 했다. 나비라는 일반적인 이름의 변화뿐 아니라 특정 종의 나비 이름과 관련된 정보를 찾는 노력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전통시대의 분류 방식이 세밀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이름은 아니더라도 호랑나비, 흰나비, 황접, 왕나부, 분접 등 몇 가지 나비 이름을 찾았고, 이는 나비 속명(俗名)을 정하는 데 참고가 되었다. 일제 강점기에 대부분의 학술활동은 일본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비의 경우 흔한 종을 제외하고는 우리말 이름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 논문을 쓰는 데는 우리말 이름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우리말 이름이 있어야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박물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한국인 생물학자들은 동식물의 우리말 이름 제정과 지역마다 다른 명칭 통일을 우선 과제로 생각했다. 석주명이 1931년 송도고보로 옮긴 다음 김병하(金秉河)와 함께 송경곤충연구회를 조직한 첫 번째 목적이 “조선산의 곤충을 연구하여 우리말로 충명(蟲名)의 통일을 꾀하자는” 것이었다.¹¹⁾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한국인 생물학자에게는 우리말 동식물명 정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1933년에 한국인 연구자만의 단체로 조직된 조선박물연구회(朝鮮博物研究會)는 박물에 대한 연구 조사와 함께 일반 민중에게 과학지식의 보급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첫 번째 사업으로 지방마다 다른 동식물 명칭 통일 작업, 동식물 한국명 제정을 추진하였다.¹²⁾ 이 작업에는 각 지방에서 부르는 토착 향명이나 전통 문헌이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¹³⁾ 1930년대 후반부터 관청, 학교, 언론에서

11) 「곤충연구소 개성에서 창립」, 『동아일보』 1931.5.13.

12) 동식물의 우리말 제정사업의 결과로 정태현·도봉섭·이덕봉·이휘재(1937), 『조선식물향명집』(조선박물연구회)이 출간되었으며, 동물명집도 원고가 거의 완성되었으나 경비 문제로 출간되지 못했다.

13) 식물명 정리 작업에 참여한 정태현은 처음에는 고사했으나 다른 연구자들의 설득으

한국어 사용이 금지되는 식민지 상황의 한국인 생물학자에게 동식물에 대한 우리 이름을 찾고 그와 관련된 역사기록을 들추는 일 자체가 문화적 민족주의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M. 로빈슨, 1990). 우리말 동식물 이름과 관련 용어가 없는 상태에서 얻어진 지식은 한국인을 위한 온전한 지식이 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우리말 이름 정리는 소극적이거나 민족주의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¹⁴⁾

석주명이 지닌 우리말, 특히 방언에 대한 깊은 관심은 일차적으로 전국 각지를 누비는 채집활동에서 기인했다. 각 지역의 독특한 방언을 접한 그는 몇 가지 흥미로운 개념을 중심으로 여러 지역의 방언을 수집했으며, 방언과 곤충간에는 지방 차이(지방型)와 개인 차이(개체변이)가 있는 등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고 연구방법에도 유사한 점이 많다고 여겨 방언 탐구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나비 분포연구처럼 방언 분포를 지도에 표시하는 작업을 기획했다가 이미 언어지리학이라는 이름으로 방언학에서 많이 취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중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1936년 7월 나비채집을 위해 제주도를 찾았던 석주명은 1943년 4월부터 2년여 동안 생약연구소 제주도 시험장에서 근무하면서 본격적인 조사를 추진하여 『제주도 방언집』을 펴내게 되었다. 그는 “제주도의 특이한 방언을 들을 때 곧 방언과 곤충을 연결시킬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석주명, 1948). 제주도와 경상도 방언과의 비교를 위해 곤충학자 백갑용(白甲鏞)의 도움을 받는 등 방언연구에서도 그의 생물학자 네트

로 합류하여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어릴 때 한학을 배웠기 때문에 전통 문헌에서 이름을 찾는 데 큰 기여를 했다.

14) 일본인이 주도하는 조선박물학회는 비슷한 성격의 조선박물연구회를 조직하는 것에 대해 반대를 했다. 동식물명 정리 사업에 대해서도 관계 당국이 일본과 조선은 한 나라이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며 견제를 했으나, 한국인 연구자들은 일본어를 모르는 농촌의 한국인들을 위해 단순 번역을 하는 것이라고 무마시켰다. 이우철, 1994.

워크를 활용했다. 또한 그는 한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글을 여러 편 발표했으며, 우리말에 대한 관심과 전공인 생물학 지식을 결합하여 정확한 우리말 생물학 용어를 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석주명이 우리말에 대해 보여준 열의와 지식은 나비의 우리말 이름 짓기에 중요한 지적 기반이 되었다. 그가 1947년 1월 조선생물학회에서 통과시킨 한국산 나비 248종의 우리말 이름에는 각시뱀노랑나비, 떠들석팔랑나비, 알락그늘나비 등 순수한 우리말 이름들이 많이 들어있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짓거나 조사한 우리말 나비 이름의 유래를 구체적으로 밝힌 책을 펴내기도 했다(석주명, 1947).

우리말과 함께 석주명은 민속·역사에 대한 관심 역시 지니고 있었다. 이 역시 각지를 다니는 채집활동과 무관하지 않았다. 그는 옛 문헌에 나타난 제주도에 대한 기록을 모아 발표하는 등 제주도, 울릉도 등에 대한 향토사 기록을 조사하여 발표했으며, 한국을 중심으로 한 박물학 연표를 만들기도 하였다. 『한국본위 세계박물학연표』에는 역사에 대한 그의 남다른 열의가 잘 드러나는데, 이 책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세계문화사 연표로서 중요한 정치적·사회적 사건들과 함께 여러 과학적·문화적 성과들을 담고 있다. 그는 이 책의 권두언에서 “국가가 있는 민족은 어느 분야에 있어서나 자국을 중심으로 한 연표를 요구”하며, “이 연표의 내용들은 창의를 있어야겠고 그것이 세계적 또는 한국적이라야만” 한다고 보고, “이 연표에서 한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과학사 내지 세계문화사에 호흡이 맞도록 힘써 보았다”고 밝혔다(석주명, 1992a). 단순한 세계박물학연표가 아니라 ‘한국 본위’로 구상한 것은 당시 홍익섭, 최남선 등 역사학자들의 ‘한국 본위’ 역사책들과 같은 맥락에 놓여 있었으며(신동원, 2011), 석주명의 기본관심이 한국 박물전통에 놓여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석주명이 자신의 나비연구를 분류학에 제한하지 않고 나비와 관련된 역사·언어 연구까지 확대한 것은 연구사 정리의 연장이자 우리 말 이름 찾기와 관련된, 즉 나비연구와 연결된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동시에 자신의 나비연구를 자연과학의 틀을 넘어 국학의 일부로 인정받기 위한 시도였다. 그는 1930년대 중반부터 전개되었던 ‘조선학운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조선학운동의 중심인물들과 교류를 갖으며 역사와 국어에 대한 관심과 소양을 키울 수 있었다.¹⁵⁾ 조선학운동은 국사·국어 연구를 중심으로 국학 연구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양상을 지칭하며, 대체로 한국의 문화적 특수 경향을 탐구하고 이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하려 했던 연구경향을 보였다(김병구, 2006; 류시현, 2011).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석주명의 생물학 연구는 그 자체로 한국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넓은 의미의 국학(조선학)이었다. 석주명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나비연구에 나비와 관련된 역사·언어 연구를 결합시킴으로써 좁은 의미의 국학에까지 자리매김 하고자 했다.

그러한 구상은 해방 이후 ‘조선적 생물학’이라는 표현으로 설명되었다. 석주명은 1947년에 발표한 「국학(國學)과 생물학」이라는 글에서 생물학의 국학적 특성을 주장했다.

국학이란 국가를 주체로 한 학문이니 국가를 가진 민족은 반드시 국학을 요구하는 것이다. 종래로 국학이라면 한문책이나 보고 읽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지만은 국학이란 인문과학에 국한될 것이 아니고 자연과학에도 관련되는 것으로 더우기 생물학 방면에서는 깊은 관련성을 발견할 수 있다. 조선에 많은 까치나 땃꿩이는 미국에도 소련에도 없고, 조선 사람이

15) 석주명은 정인보, 최남선 등의 역사학자와 홍기문, 김태준, 방종현, 조윤제 등의 국어국문학자와 학문적 교류를 유지했으며, 나비에 대한 고전의 연구에서 그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상식(常食)하는 짙은 미국이나 소련에서는 그리 많이 먹지를 않는다. 그러나 자연과학에서는 생물학처럼 향토색이 농후한 것은 없어서 조선적 생물학 내지 조선 생물학이라는 학문도 성립될 수가 있다(석주명, 1948).

석주명이 해방 전에 발표한 글에는 ‘조선적 생물학’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그의 활동에서도 생물학의 국학적 의미를 강조하는 경향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무엇보다 석주명은 자신의 연구대상을 철저하게 ‘조선’의 나비로 한정했는데, 이는 조선적 생물학의 첫 번째 요소가 되었다. 그가 발표한 논문 중 많은 경우가 ‘조선산’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었으며, 일본이나 중국의 나비에 관한 논문 서두에는 반드시 ‘조선산 나비에 대한 비교연구용’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그는 “조선산을 중심으로 동양전역, 중앙아시아, 구라파, 타 대륙 등으로 연구대상을 넓힘으로써 지구 위에 있어서의 조선나비를 비교적으로 잘 알게 될 것이”라 보았다(석주명, 1992b) 이는 『한국본위 세계박물학연표』가 한국 박물학을 세계적 흐름 속에서 비교적 관점에서 잘 이해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었던 것과 동일한 맥락이었다. 또한 앞 절에서 논의했듯이 그가 한국 나비를 연구했던 연구방법도 조선에 거주하지 않고 전문 채집가가 보내오는 소수 표본에 근거해 연구를 수행하는 해외 연구자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그들은 대체로 분류체계를 세분화하려는 경향을 보였고, 조금만 다른 표본이 발견되면 새로운 종이나 변종으로 취급하려 했다. 이에 비해 석주명은 한반도 전역을 발로 뛰어 확보한 방대한 표본을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잘못된 학명인 동종이명을 제거하는, 한국인 연구자가 잘 할 수 있는 연구방법으로 왜곡이나 과장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나비상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 결국 ‘조선적 생물학’은 한국 생물을 대상으로 한국인 연구자가 강점을 보이는 방법으로 한국 생물상

의 진면목을 추구하는, 국학적 성격이 깃든 연구였다.

사실 박물학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국가를 연결 지으려 했던 시도가 아주 새로운 흐름은 아니었다.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활동했던 많은 영국의 박물학자들에게 자신이 식민지에서 채집한 표본들이 대영제국의 확장을 의미한다는 민족주의적인 신념과 목표가 자리 잡고 있었음은 잘 알려져 있다(Browne, 1996). 석주명의 경우 조선적 생물학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연구에 국적을 부여하고자 했지만 토착적 연구자가 강점을 보이는 방식으로 제국주의 시각에 왜곡되지 않은 생물상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제국주의 박물학자들의 의도에 맞서는 대척점에 놓여있었다. 더 나아가 석주명의 조선적 생물학은 나비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까지 포괄하고 있었다. 전통문헌 속에서 나비에 대한 기사를 찾아 소개하고 나비라는 이름의 변화 양상을 추적하는 한편, 남계우를 그의 그림과 함께 대중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노력 역시 조선적 생물학의 일부였던 것이다.

우리는 흔히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과학자에는 조국이 있다”는 파스퇴르의 경구를 인용하곤 한다. 하지만 최근 과학기술학 연구에서는 동일한 지식을 다루더라도 나라마다 그 과정이나 강조점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과학에도 국가적 스타일이 있다는 주장을 한다. 일제 강점기에 대부분 한국인 과학기술자들이 과학의 보편타당성과 가치중립성을 믿었으며, 현재도 많은 과학기술자들이 그같은 믿음을 갖고 있음을 감안할 때 반세기 전 석주명이 비록 생물학에 국한되었지만 과학에 ‘조선적’이라는 국적을 부여하려 했던 시도는 매우 특별한 것이었다.

석주명의 독특한 과학관은 식민지라는 상황에서 볼 때 다분히 민족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태도는 일본인 연구자를 보조했던 생물학자나 일본제국대학 출신의 생물학자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그보다는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지만 상대적으로 자유로

왔고, 교육을 위해 우리말 이름에 더욱 민감했던 ‘교사 겸 연구자’인 석주명에게 어울렸다. 하지만 그같은 특성은 식민지가 부여한 선형적 신념이 아니라 그가 직접 필드워크를 해서 얻은 결과와 외국 학자의 연구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형성된 ‘경험적 믿음’이었다. 그러한 믿음이 방대한 표본을 바탕으로 한 자신의 분류학 연구를 더욱 강화시켜 75만 개체의 채집·조사에 이르게 했으며, 그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그의 믿음을 더욱 굳게 만들었다. 여기에 역사·언어라는 국학적 성격이 농후한 요소를 생물학 연구와 결합함으로써 그는 ‘조선적 생물학’이라는 과학관을 형성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석주명의 발로 뛰는 나비연구와 독특한 과학관은 상호 영향을 주며 서로를 형성·발전(co-development)시키는 관계였다. 결국 ‘조선적 생물학’은 단순한 수사라기보다 그의 연구를 이끄는 중요한 아젠다였다.

V. 과학과 인문학 가로지르기

최근 들어 석주명이 새롭게 주목을 받는 배경에는 융복합 학문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이 깔려있다. 생물학자이면서도 역사, 언어, 제주학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족적을 남겼기 때문에 융복합이 강조되는 학계 분위기 속에서 그의 학문활동이 새삼 조명을 받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석주명은 방언, 인구학, 곤충, 문헌조사 등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포괄하는 제주학의 선구자였다(윤용택, 2011a). 『제주도 방언집』에서 첫 결실을 맺은 그의 제주연구의 끈은 1936년 7월 나비채집을 위해 제주도를 찾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통계처리를 기본으로 하는 석주명식 분류학을 위해 한반도 곳곳을 누비던 그는 지역마다 상이한

특성을 보이는 방언에 대한 관심을 키웠고, 특히 제주도의 특이한 방언은 그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에 따라 나비표본을 채집하여 개체 변이를 측정하고 분포연구를 더하듯이 제주 방언을 채집하고, 인구 양상을 모아 인구분포표를 만들었다. 나비연구사를 망라하듯이 제주와 관련된 문헌과 자료를 총정리하는 일도 잊지 않았다. 이러한 노력은 6권에 이르는 제주도 총서의 집필로 이어졌고, 지역학이라는 인식이 공유되기도 전에 석주명이 명명한 ‘제주도학’이 시작했던 것이다.

한편으로 석주명은 한국 에스페란토 운동의 선구자 중 한명으로 평가 받는다. 사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생물학계보다 에스페란티스토 사이에서 석주명의 이름이 더 자주 오르내렸던 것이 사실이었다(김삼수, 1976; 이영구, 2011). 그의 에스페란토에 대한 관심은 가고시마고농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 강점기에도 에스페란토의 가치와 의미를 알리며 보급에 힘을 썼고, 해방 이후 에스페란토 교과서 검 소사전을 직접 편찬한 열혈 에스페란토 선구자였다. 만국 공통어인 에스페란토는 조선적 생물학이라는 국학적 태도와 일견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몇몇 제국주의적 언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문활동 대신 약소민족에게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중립적이고 민주주의적 언어라는 측면에서 에스페란토는 석주명의 시선을 당겼다(석주명, 1949a). 실제로 석주명에게 에스페란토는 해외 여러 나라 연구자들과 나비연구를 위한 학문적 교류 수단으로 큰 의미가 있었다.

이처럼 석주명의 학문 영역은 과학에서 인문학까지 폭넓게 걸쳐있지만 역시 그의 주된 연구테마는 나비였으며, 세간에서 불렸던 ‘나비박사’라는 별칭은 그의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규정하는 표현이었다. 그는 자신의 역사나 언어에 대한 관심이 나비와 무관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1949년에 발표한 글에서 자신이 인문학 분야에 상당한 관심을 가

지고 있는 것도 결국은 나비연구를 더욱 깊이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학문이 아무리 세분화되었다 하더라도 한 분야의 권위자가 되기 위해서는 타과목에도 통하는 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했다. 예를 들어 나비의 학문인 인시류학(鱗翅類學)의 권위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와 직접 관계되는 곤충학, 동물학, 생물학에 어느 정도는 통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시류학이 생물학 전체에서 어떤 위치에 있으며 다른 분야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고서는 인시류학의 계통을 밝힐 수 없기 때문이었다. 더 나아가 물리, 화학 등 다른 과학 분야와 인문역사까지도 관심을 가져야 진정한 나비학문이 될 수 있었다.

나비의 학문이라도 깊이 들어갈려면 지질학, 物學을 포함하는 박물학(Natural History)도 바라보아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박물학에 상대되는 물리, 화학도 최소한도로는 알아야 자기의 나비의 학문을 자연과학(Natural Science)의 계통에 갖다 맞출 수가 있다. 동시에 Natural History(자연역사 즉 박물학)에 또 한번으로 상대되는 Human History(인문역사 즉 협의의 역사)에도 손이 뻗어야 인생과의 관계에까지 가져가서, 철학적 경지에 들어가 비로소, 나비의 학문도 계통이 서게 되는 것이다.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가 나비를 연구한다는 것이 나비 그것만도 조사도 하지 마는 나비를 통해 자연의 법칙을 구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니 자연과 인생의 조화를 도모하는 우리 자연과학도는, 위에 말한 바를 시인하게 될 것이다(석주명, 1949b).

나비 연구도 궁극적으로는 자연의 법칙을 찾아내 자연과 인생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기에 나비학자도 인문역사에 대한 소양을 갖추어야 된다는 설명이었다. 그렇다고 인생과 관련을 우선시하여 탐구하면 제대로 된 나비 연구가 될 수 없었다. “곤충학뿐만 아니라 학문이란 것은 어느

분야에서나 인생과 직접 관련된 부면만을 취급해서는 학문 전체가 완성
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석주명, 1948). 석주명은 한 과목을 전공
하는 학도[연구자]가 학문전체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도 학자[연구]나 정치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으로
정치가 역시 과학을 비롯한 학문에 관심을 가져야 했다. 인구나 식량문
제 등 중요한 정치 문제는 대부분 생물학적 기초 없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결국 석주명의 인문에 대한 탐구는 진정한 나비연구를 완성하기 위한
긴 여정에 놓여 있었다. 다시 말하면 ‘나비연구를 위한 인문학’ 혹은 ‘인
문학적 나비학’인 셈이었다. 자연과 인생의 조화가 궁극의 목적이지만
나비박사의 출발점과 종착점은 역시 나비연구였다. 사실 그의 제주학
연구도 곤충연구와 잇달아 있었다. 그는 제주도 곤충조사와 제주도 방언
내지 제주도 조사 사이에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다. 곤충 연구
와 방언 연구가 지니는 방법론적 유사성 뿐 아니라 제주도 나비의 진짜
모습은 제주도 전모를 구명함으로써 더욱 잘 인식되기 때문이었다. 『제
주도 관계 문헌집』에서 그는 특정 분야 전문가라야 제주도 연구에서도
전반적으로 공헌할 수 있다고 평가했는데, 이는 나비연구에서 뻗어나간
자신의 제주연구를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석주명, 1949c). 하나의 핵심
분야에 튼튼한 기반을 두고 영역을 확대해 감으로써 광의의 제주학 연구
를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20세기를 전후로 한 시기에 곤충학자 혹은 생물분류학자가 석주명처
럼 지역문화나 역사, 인류학적 탐구로 나가는 것이 아주 이례적인 경우
는 아니었다.¹⁶⁾ 이는 개별 학문의 전문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시

16) 윤용택은 석주명을 통재형(通才形) 학자로 정의하고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일본의
통재형 학자로 미나가다(南方熊楠, 1867~1941), 이하(伊波普猷, 1876~1941)를

대상항도 작용했지만 기본적으로 곤충연구나 분류학이 지니는 필드워크, 그리고 꼼꼼한 채집이라는 실천적 특성과 무관하지 않았다.

‘오키나와 자연계의 학문적 개척자’이자 ‘오키나와 연구의 선구자’ 중 한 명으로 꼽이는 구로이와 히사시(黒岩恒, 1858~1930) 역시 생물연구가 본업이었다. 그는 부친으로부터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사숙에서 한학을 공부했으며, 각종 학교에서 서양 학문을 배웠다. 이후 독학으로 교원 검정자격시험을 통과한 뒤 1892년 오키나와에 건너와 사범학교 교사로 근무했다. 그는 10년간 근무하면서 박물학, 지질학, 수산학에서 윤리, 동양사까지 가르쳤으며, 오키나와 각 섬의 생물상과 자연지리를 조사하여 『動物學雜誌』, 『地質學雜誌』, 『植物學雜誌』, 『人類學雜誌』에 논문을 게재하고 각종 표본을 학회에 제공했다. 현재 구로이와도마뱀 등 그의 이름이 붙는 오키나와산 동식물이 수십 종에 달한다. 1902년 신설된 농학교 교장이 되어 1914년까지 근무했으며, 1920년에는 와카야마현(和歌山縣)으로 옮겨 도쿄대 촉탁이 되어 담수어류를 연구했다. 구로이와의 오키나와에 대한 관심은 동식물, 지질, 민속까지 매우 넓었으며, 자연계 연구뿐 아니라 오키나와인류학회 발기인 중 한명으로서, 오키나와 민간에 전해지는 속담을 채집하여 오키나와 전통문화와의 관련을 살피는 등 오키나와의 민속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를 실시했다.¹⁷⁾

석주명과 거의 비슷한 연배로 홋카이도 곤충상과 홋카이도 원주민인 아이누에 대한 연구를 함께 했던 고노 히로미치(河野廣道, 1905~1963) 역시 본업인 생물학에서 고고민속학까지 학문적 관심사를 확대한 인물

제시한 바 있다. 윤용택, 2011b.

17) 구로이와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센카쿠열도’의 이름을 붙인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구로이와에 대해서는 『澤村さんの沖繩通信: 知られざる高知人 黒岩恒』(<http://blog.goo.ne.jp/syokugyobetu/e/69250f941c0213e3ac338d76e4be0504>) 참고(2011년 11월 접속).

이었다. 그는 모교인 홋카이도제국대학 농학부 곤충학교실 강사, 홋카이도교육대학 교수를 지냈으며, 『札幌博物學會會報』 등 생물학 관련 학술지에 개미붙이, 거위벌레, 등에, 꽃벼룩 등 홋카이도 여러 곤충류에 대해 많은 논문을 발표한 곤충학자였다. 그러나 1930년대 이후 아이누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키워가며 『人類學雜誌』, 『博物館研究報告』 등에 홋카이도 선사시대, 아이누 전통문화와 유적 등에 대해 다수 논문을 발표했다. 그의 고고학적 관심은 홋카이도 역사를 연구한 부친의 영향도 있었지만 곤충학자로서 홋카이도 전역을 답사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들에서부터 생겨난 것이었다.¹⁸⁾

석주명이 구로이와나 고노의 작업으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사한 시기에 우연하게도 비슷한 학문적 취향을 지녔던 것에 불과할 수도 있다. 다만 기본적으로 생물학 연구, 특히 분류학 연구를 위해서는 ‘채집’이라는 행위가 필수적이며, 표본수집을 위한 채집여행 혹은 필드워크를 통해 생물을 넘어 해당 지역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접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웠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첫 번째 생물학자로 꼽히는 식물분류학자 정태현도 자신의 연구 활동을 소개하면서 채집을 위해 각지를 다니면서 접하게 된 향토사나 문화에 대해 언급하곤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류학자와 인문역사 탐구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었다(정태현, 1964).

석주명이 나비학자로서 방대한 자료 수집에 바탕해 탐구 영역을 확대해 나가던 양상은 20세기 성(性)연구에서 선구적 업적을 남긴 킨제이(Alfred C. Kinsey, 1894~1956)를 떠오르게 한다(조너선 개손 하디, 2010). 킨제이는 성연구자 이전에 북미의 흑벌을 연구한 곤충연구자로,

18) 고노에 대한 간단한 인명사전 해설은 <http://kotobank.jp/word/%E6%B2%B3%E9%87%8E%E5%BA%83%E9%81%93> 참고(2011년 11월 접속).

수십만 마리의 표본을 채집해 28가지를 측정하여 통계처리를 통해 흑별 연구에서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고 평가받는다. 어릴 때부터 양치식물, 꽃, 식물 잎, 나비, 음반 등 다양한 수집 취미를 가지고 있던 그는 흑별 연구에서도 넓은 지역에서 수집한 방대한 표본의 정량적 형질을 측정하여 연구하는 방법을 개척했으며, 뒤늦게 시작한 성연구에서도 방대한 자료 수집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물론 많은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기본으로 하는 그의 성연구와 곤충연구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는 쉽지 않지만 방대한 자료 수집은 일관된 원칙이었다.¹⁹⁾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인문사회 분야에 학문적 관심을 보이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는 것은 분명 흔한 일은 아니다. 또한 그 같은 학문적 궤적을 보인 연구자들은 각기 독특한 배경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선부른 일반화를 제시하기는 어렵다. 다만 필드워크와 자료수집을 기본으로 하는 생물분류학, 특히 곤충학 연구자들의 경우 자료수집에 특히 민감하며 그러한 성향이 인문학적 관심사로 확장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은 지적할 수 있다. 여기에 석주명이 언급했듯이 방언과 곤충 연구처럼 방법론의 유사성이 학문적 확장을 더욱 쉽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다.

물론 자료수집에서 좀 더 체계적인 학문적 탐구로 나아가는 것이 항상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특별한 재능과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연구자 자신도 그 같은 확산형 학문 추구에 대한 논리적 정당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석주명은 나비연구의 수준을 높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자연법칙을 찾아내 자연과 인생의 조화를 도모하는

19) 킨제이는 한 때 피아니스트를 꿈꿀 정도의 연주 실력을 갖추었지만 자신의 재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포기했다. 석주명 역시 상당한 실력을 갖추고 기타 연주자를 꿈꾸었다 같은 이유로 포기했다. 이병철, 1985.

것이 과학자의 의무이고, 이를 위해 삶과 관련된 인문사회에 대한 탐구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록 언어나 지역학 조사가 그의 나비연구에 어떻게 실질적 도움을 주었는지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만, 그의 학문적 여정은 결국 나비연구에서 시작해 나비연구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VI. 맺음말

나비분류학에서 방언조사, 고전 조사 및 박물학사 정리, 아직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제주학 연구, 그리고 에스페란토운동에 이르기까지 석주명의 학문활동은 과학과 인문학을 넘나들었다. 자연에 존재하는 나비를 대상으로 한 석주명의 연구는 단순한 목록작성에서 개체변이 중요성을 확인하고 동종이명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며, 자연이 아닌 역사 속에 존재하는 나비를 찾는 단계로 나아갔다. 그는 자신의 나비연구를 단순히 생물학 연구에 가두지 않고 국학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하길 원했고, 이를 위해 나비와 관련된 역사와 언어에 대한 탐구를 추가했다. 한반도 전역을 누비던 자신의 연구방법 덕분에 각 지역마다 독특한 방언이나 역사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된 석주명은 ‘조선학운동’ 흐름 속에서 조선학자들과 교류를 통해 자신의 관심을 더욱 구체화하여 이를 나비연구와 결합시킴으로써 ‘조선적 생물학’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여기에 제주도 채집을 계기로 갖게 된 흥미를 2년의 체류를 통해 6권에 달하는 제주도 총서로 이끌어냈고, 에스페란토교과서 검 소사전을 집필한 에스페란토운동의 선구자까지 그의 학문적 관심은 그가 채집한 나비표본만큼이나 방대했다.

석주명 연구활동은 상당부분 문화적 민족주의 틀 안에 놓여 있었다. 일제 강점기 학문활동과 교육에서 우리말이 배제되어가는 상황에서 역사와 언어를 나비연구에 결합시키고, 나비 등 곤충의 우리말 이름 정하는 데 나섰던 석주명의 조선적 생물학은 문화적 민족주의의 큰 흐름에 놓여 있었다. 여기에는 교사 겸 연구자로서 교육문제를 고민했던 그의 경력이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실제 연구에서 체득한 석주명의 경험적 민족주의는 민족의 우수성을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국수적 민족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는 그의 연구활동에 나비연구라는 딱딱한 중핵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국의 자연을 대상으로 왜곡되지 않은 생물상을 추구했던 그에게 한국적 우수성을 강조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한국 나비상이 특별히 다양하다거나 특산종이 많다거나 뛰어난 특성을 지닌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사실 특산종도 많은 경우에 충분한 연구가 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했다(석주명, 1948). 중요한 것은 과장과 왜곡을 피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밝히고, 생물과 환경과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자연과 인생의 조화를 찾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석주명의 학문은 나비연구를 중심에 탄탄히 놓고 주변을 인문학으로 둘러싸면서 확대·보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최근 융복합이 강조되면서 단순히 한 우물을 파기보다는 우물을 넓게 그리고 깊게 파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 아직 융복합이라는 기치에 맞는 방법론의 확립이나 성과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로서는 ‘따로 또 같이’라는, 개별 분야의 접근에서 출발하여 공동의 목표로 나아가는 방안이 유력하며, 여러 세부 주제를 포괄하고 있는 제주학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넓게 팔을 벌린 석주명식 학문은 그같은 접근에 어울리는 방식이 될 수 있다. 그에게 나비연구는 깊고 넓게 파는 우물의 중심부에서 지속적으로 주변에 물줄기를 공급하여 우

물을 넓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전국도를 누비는 채집여행에서부터 시작한 석주명의 나비연구는 통계적 분류학과 생태학 초기단계인 분포연구를 거쳐 국학적 생물학으로 이어졌으며, 더 나아가 역사·언어연구까지 가치를 뻗어나갔다.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상당부분은 미완의 기획으로 남았지만 나비연구, 제주연구, 에스페란토 등 각각은 이후 개별적 발전의 굳건한 토대가 되었다. 다양한 방향으로 뻗어나간 석주명식 확산형 학문은 그의 설명에 의하면 자신의 학문활동 출발점이었던 나비연구의 가치와 위상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누가 뭐래도 석주명은 ‘나비박사’였다.

참고 문헌

- 『곤충연구소 개성에서 창립』, 『동아일보』 1931.5.13.
- 『서재방문기-세계적 나비학자 석주명씨편』, 『주간서울』 60호, 1949.
- 김근배(2005), 『한국 근대 과학기술인력의 출현』, 문학과지성사.
- 김병구(2006), 『일제하 ‘조선적인 것’의 기원과 형성: 고전부흥의 기획과 ‘조선적인 것’의 형성』, 『민족문화사연구』 31, 민족문화사학회.
- 김삼수(1976), 『한국에스페란토운동사』,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성원(2008), 『식민지시기 조선인 박물학자 성장의 맥락: 곤충학자 조복성의 사례』, 『한국과학사학회지』 30-2, 한국과학사학회.
- 김종욱(2002), 『이광수의 개척자 연구』, 『국어국문학』 132, 국어국문학회.
- 김훈수(1989), 『한국생물학사-1945년 이전 개관』, 『생물과학 심포지움』, 10집, 한국생물과학협회.
- 류시현(2011), 『1930년대 안재홍의 ‘조선학운동’과 민족사 서술』, 『아시아문화연구』 22, 경원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 문만용(1999), 『‘조선적 생물학자’ 석주명의 나비분류학』, 『한국과학사학회지』 21-1, 한국과학사학회.
- 박상대(2004), 『강영선 회원』, 『앞서 가신 회원의 발자취』, 대한민국학술원.
- 석주명(1947), 『조선 나비이름의 유래기』, 백양당.
- 석주명(1948), 『국학과 생물학』, 김정환 편, 『현대문화독본』, 문영당.
- 석주명(1949a), 『‘에스페란토’론』, 『新天地』 4권 2호, 新天地社.
- 석주명(1949b), 『교사와 학자』, 『새교육』 5, 대한교육연합회.
- 석주명(1949c), 『제주도관계문헌집』, 서울신문사출판부.
- 석주명(1972), 『한국산 접류의 연구사』, 『한국산 접류의 연구』, 보진재.
- 석주명(1973), 『한국산 접류 분포도』, 보진재.
- 석주명(1992a), 『한국본위 세계박물학연년표』, 신양사.
- 석주명(1992b), 『나비채집 이십년의 회고록』, 『나비채집 이십년의 회고록』, 신양사.
- 석주명(1941), 『南나비傳』, 『朝光』 1941년 3월호, 朝光社.
- 신동원(2011), 『한국과학사에서 본 석주명』, 『석주명 선생 탄생 103주년 기념학술

- 대회 자료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윤용택(2011a), 「석주명의 제주학 연구의 의의」, 『탐라문화』 39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윤용택(2011b), 「학문 융복합의 선구자 석주명」, 『석주명 선생 탄생 103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이병철(1985), 『위대한 학문과 짧은 생애 -나비박사 석주명 평전』, 동천사.
- 이병훈, 김진태(1994), 「서양 근대 생물학의 국내 도입에 관한 연구 -동물분류학을 중심으로」, 『한국동물분류학회지』 10-1, 한국동물분류학회.
- 이영구(2011), 「석주명의 에스페란토운동의 의의」, 『석주명 선생 탄생 103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이영록(2004), 「이민재 회원」, 『앞서 가신 회원의 발자취』, 대한민국학술원.
- 이우철(1994), 「하은 정태현박사 전기」, 『(하은)생물학상: 25주년』, 하은 생물학상 이사회.
- 이창언, 김원, 권용정(1991), 「한국 절지동물 연구의 과거 및 현재와 발전방향」, 『한국동물분류학회지』 7-1, 한국동물분류학회.
- 임종태(1995), 「발명학회와 1930년대 과학운동」, 『한국과학사학회지』 17-2, 한국과학사학회.
- 정영호(1984), 「한국 관속식물분류학의 성장과 전개」, 『분류학의 돌담불』, 예초 정영호박사 화갑기념사업회.
- 정태현, 도봉섭, 이덕봉, 이회재(1937), 『조선식물향명집』, 조선박물연구회.
- 정태현(1964), 「야책(野冊)을 메고 50년」, 『성대신문』, 성관대학교신문사, 2002년 『숲과 문화』 11-3에 같은 이름으로 다시 게재되었다.
- 조너선 개슨 하디(2010), 『킨제이와 20세기 성연구』, 김승욱 옮김, 작가정신.
- M. 로빈슨(1990), 『일제하 문화적 민족주의』, 김민환 옮김, 나남.
- 杉山滋郎(1994), 『日本の近代科學史』, 朝倉書店.
- 石宙明(1943), 「南啓宇の蝶圖に就て」, 『寶塚昆蟲館報』 28, 寶塚昆蟲館.
- 中井猛之進(1927), 「朝鮮植物の研究」, 『東洋學藝雜誌』 534, 東洋學藝社.
- Browne, J.(1996), “Biogeography and empire”, Jardine, N., Secord, J. A. and Spray, E. C. ed., *Cultures of Natural History*, Cambridge Univ. Pr.
- Chambers, D. W. and Gillespie, R.(2000), “Locality in the History of Science : Colonial Science, Technoscience, and Indigenous Knowledge”, *Osiris*

15, The History of Science Society.

Fan, F.(2004), *British Naturalist in Qing China: Science, Empire, and Cultural Encounter*, Harvard Univ. Pr.

Mayr, E., Linsley, E. G. and Usinger, R. L.(1953), *Methods and Principles of Systematic Zoology*, McGraw-Hill Book Company, Inc.

Seok, D. M.(1939), *A Synonymic List of Butterflies of Korea*,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Abstract

From Butterfly Taxonomy to the Humanities:
The Growth and Significance of Seok Joo-myung's Butterfly Research

Moon, Man-Yong*

Beginning with butterfly taxonomy, Seok Ju-myeong was involved in a wide variety of academic activities including the investigation of classics, organization of natural history, dialect to demography in the Jeju Studies, and the Esperanto movement. Not wanting to limit his butterfly research to the field of biology, Seok Ju-myeong added butterfly-related history and language in the hopes of expanding his study to the Korean Studies level. While collecting large numbers of specimens across the Korean Peninsula, he gained an interest in the unique dialect and history of each region. Intrigued by the study of Jeju, he wrote the six-volume series on Jeju. He explained that his interest in the humanities served to promote the harmony of nature and life - the ultimate purpose of his butterfly research. Aimed at enhancing the value and status of butterfly research, Seok Ju-myeong's diverse academic activities can be seen as a 'humanities approach to butterfly studies' as well as an extension of his vast data collection.

Key Words

Seok Ju-myeong, butterfly taxonomy, Jeju Studies, Korean Studies,

* Research Professor, Korea Research Center for the History of Science, Technology and Civilization, KAIST

humanities approach to butterfly studies, data collection.

교신 : 문만용 305-701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KAIST 한국과학문명사연구소
(E-mail : moon1231@gmail.com 전화 : 042-350-4643)

논문투고일 2011. 12. 14.

심사완료일 2012. 02. 01.

게재확정일 2012. 02. 13.